

중국의 석유화학 비전 ①

경제성장 발판으로 석유화학 확대!

WTO 가입 후 다국적기업 참여 경쟁치열 ... 시장개방 대처가 성장좌우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및 중동의 대규모 석유 및 석유화학기업들이 진출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 석유화학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능력도 자국의 수요를 넘어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미 및 유럽 석유화학기업들은 M&A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규모를 점점 확대해가고 있으며 핵심사업 및 기술이 중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또한 아시아 투자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국, 일본, 타이, 싱가포르 및 타이완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수입 의존적에서 수출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고, 금융위기를 전후로 시행된 대규모 개혁을 통해 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방성 및 외국과의 협력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다. 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몇몇 석유화학제품은 대량 수출하고 있다.

아시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중동 또한 몇년 전부터 석유 생산국으로서 저코스트 석유원료를 등에 업고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 들어 상당한 발전을 거듭했으며 중국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순수 석유 수입국가로 전환된 이후 원유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의 원유 소비량은 총 2억1800만톤, 생산량은 1억6500만톤에 달했으며 순 수입량은 5271만톤으로 전체 소비량의 1/4을 차지했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7% 성장하고 원유 소비량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 생산량은 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유 공급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005년 약 2억5000만톤에 달해 9500만톤 가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석유 및 석유화학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기술교환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기술이전 또는 합작기업 설립에서 100% 자회사 설립 또는 직접판매(Direct Sale)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으로의 기술판매도 축소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지적 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석유 및 석유화학기업들이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입장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환경친화적이며 청정원료를 사용해 화학제품을 생산해하고 동시에 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또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들이 현지인 채용전략을 시행함에 따라 인재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인재 육성, 채용, 확보 및 활용능력 등이 중국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24>